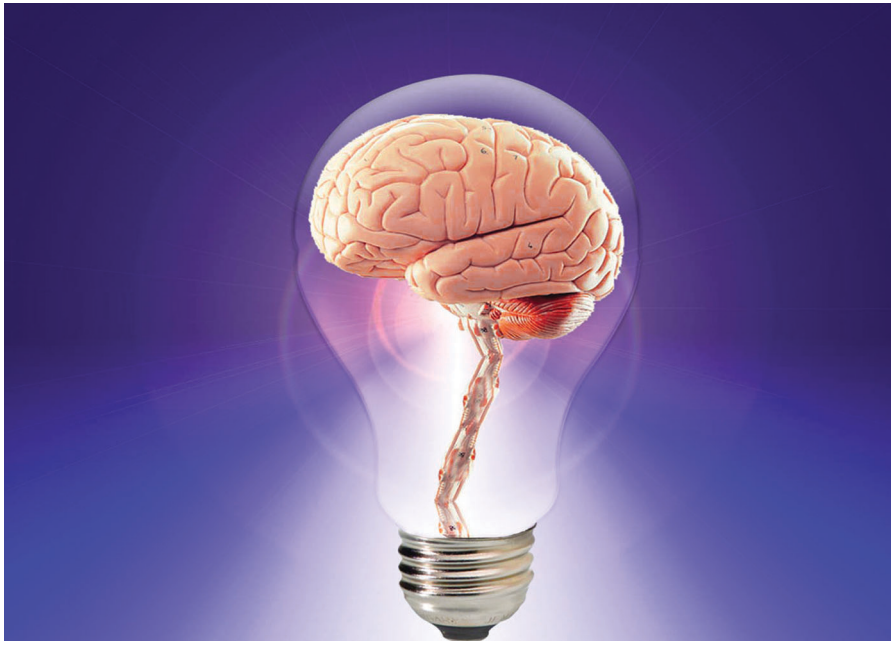


고통스런 삶을 헤쳐 나가는 비결

영생의 희망으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정의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타당한 것 중의 하나가 인생은 고택(苦海)라는 석가세존의 정의이다. 그렇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고통은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가피 오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정이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택의 세상에 나온 탄생의 아픔으로 울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그 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일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짧은 생을 뒤로 하고 사과의 골짜기로 슬러 내려간다.



희망적인 사고를 하면 생명에너지가 증가되어 뇌세포가 활성화 된다

인생의 종착역이 반드시 죽음이라면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인생이 이슬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끝나는 거라면 정말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죽기 위하여 돈을 벌었다가 되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가 되고, 죽기 위해 살았다가 된다. 인생이 이처럼 죽기 위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죽는 게 오히려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제단은 전 인류를 향해 외치고 있다.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도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영생이라고 하니 죽은 뒤에 영혼이 영생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혼의 영생이나 사후세계에 관한 것과 전혀 다르다. 인간의 육신이 어느 정도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영생의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생명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생활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제로 이상으로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 에너지는 사용법에

따라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한다.

한편 인간은 조상의 핏값에 상응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에너지는 죄를 지으면 감소하고, 의를 행하면 보충된다. 욕심을 따라 살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양심에 따라 살면 에너지가 늘어난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생활을 살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을 실천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나밖에 모르는 식으로 살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죽음이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消盡)된 상태이다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삶은 먼저 큰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연료이다. 희망이 점점 커지면 생명력도 그만큼 커진다. 희망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생명력은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절망은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는지도 모른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피가 쪽쪽 썩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세상 희망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은 영생의 희망이다.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면 자신의 생명에너지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 에너지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날아다니는 몸이 되기도 하고, 더욱 더 에너지 차원이 상승하면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승리제단은 인간의 생명력을 증가시켜 결국은 영생을 이루는 구도자들의 단체이다. 영생의 비결은 오직 승리제단에서만 가지고 있다. 영생을 원하는 구도자들은 어서 빨리 이곳으로 어서 와야 한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4)
“하나님의 몸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하고 피가 변함으로 몸이 변한다. 현실적으로 피의 정도에 따라 죄의 숫자에 의해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각에 따라 피가 변하고 생각에 따라 몸이 변하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인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고로 하나님의 몸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요 완전히 참자라든지 심장 혈액 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체로 화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이미 설명한 것이다.*

구도의 길 중(僧) 정신과 속죄양

성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모 목사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유명 일간지에 최근 게재되었다. 다일복지재단(최일도 목사)은 이에 대해 해당 목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스컴에 목사의 일탈행위가 보도되는 것 또한 심심치 않다.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계를 향하여 작심 발언을 날렸다. 최근 50년간 불교가 사회에 기여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서 도대체 목사들도들은 군인정신이 있는데 중증(중(重)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 모습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최근 불교계는 도박, 음주 운전, 여자 문제 등으로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매스컴을 탄 승려들이 조계종 전 현직 고위층 인사들이 적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더욱이 출가자들이 점점 감소하고 신도 수는 줄어드니 불교의 미래가 암담한 터라 자승 총무원장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는 안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교단이나 종단에서 결집하면 감투 싸움이나 재산 싸움과 같은 세속적인 문제가 종종 불거져 나오니 세상이 종교인들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는 자승 스님도 개탄(慨嘆)이 나온 지 오래다. 빛과 소름이 되어야 하는 종교인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 세상에 종교다운 종교가 없다”고 35년 전부터 승리제단은 외쳐왔다. 참된 종교라면 인류를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인류는 하나가 된다. 전쟁과 테러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희생생활로 ‘함몰사상(인류는 한 몸이라는 사상)’을 실천하신 조희성 구세주를 인류는 본받아야 된다.

올해는 양의 해이다. 양은 예로부터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代贖)해 주는 제물로 쓰였다. 즉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속죄양(贖罪羊)이라는 말이 나왔다. 구세주란 속죄양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양피로 오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조희성 구세주의 보광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代贖)하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부제단 1월 성적 발표



5지역 신승이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운봉수 대표는 2월 3일 본부제단 전체 구역장회의에서 6개 지역 1월 활동에 대하여 성적을 발표하고 시상하였다. 운봉수 대표는 “오늘 상을 받은 분들은 보통 노력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천국에 복을 쌓는 것이다. 온갖 노력과 정성을 들인 결과다. 육적인 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절기성금에 대하여 “전 지역이 절기성금을 100% 이상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한 지역도 미달되지 않고 초과 달성하였다. 목표를 채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기어코 해내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하였으며 “올해는 ‘변화를 입자’는 주제로 자유율법 실천운동을 제대로 실천

5지역 6개월만에 1등

하여 변화를 입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순, 지회장 신순이)
- 지역 2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박점상)
- 지역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이승애)

- 구역 1등: 12구역 신불선
- 구역 2등: 45구역 신순이
- 구역 3등: 6구역 최종식

- 개인 1등: 이만선 장모
- 개인 2등: 신불선 장모
- 개인 3등: 김인숙 집사*

조희성 총재 보광 직후 2004. 8. 24. 내린 이슬성신



특별전도팀 운영하기로

특별전도에 관심 있는 분, 하나의 숯불 덩어리가 되어 전국 승리제단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상욱)는 2015년 전국제단 전도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전도팀을 운용하기로 하고 1월24일자로 팀장과 부팀장에 각각 김종만 승사와 김주호 승사를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전도팀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에 관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열매 맺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방법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만 전도특별팀장은 “현재 승리제단에 대한 잘못된 여론으로 전도 열매 맺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였다. 올해는 우리의 억울함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기필코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전도의 실적을 반드시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호 부팀장은 “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이 될 지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전도에 관심 있는 분, 하나의 숯불 덩어리가 되어 전국 승리제단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전도팀은 과거 운영되었던 특별전도대(특전대)와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특전대는 지방제단 전도지원만을 주목적으로 했다.*

김중천 기자



시사뉴스저널 2015년 2월 호 승리제단 소개

시사뉴스저널은 2월호에 “육신 영생 주장한 영생교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라는 타이틀로 6쪽에 걸쳐서 승리제단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시사뉴스저널은 조희성 총재의 보광 후 승리제단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잘 터치하여 객관적으로 다루었다. 조희성 총재는 구세주로서 죄인의 죄를 담당한 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였다*

인사발령

본부제단 특별전도팀

- 팀장 김종만 승사
- 부팀장 김주호 승사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